

부산광역시의 에이즈 감염예방을 위한 관리

정 중 화 / 부산광역시 보건과

1. 부산광역시의 AIDS감염자 현황

부산광역시는 우리나라 제1의 항구도시로 외항선원의 출입이 잦은 지리적 특성을 갖고 있어 AIDS 감염자가 전국의 약 25%를 차지하고 있다. (표1. 감염자 발생현황)

또한 감염경로를 보면 항구도시의 여건상 국외의 성접촉으로 인한 발생이 근래에 와서는 내국인간 성접촉으로 인한 감염발생률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표2. 감염경로별 현황)

연도별 AIDS 감염자 발생율은 '87년 최초 발생이래 매년 감염자가 증가하고 있다. (표3. 연도별 발생현황)

감염자 연령별 발생 현황은 감

염증이 20대 후반에서 30·40대에 현저하게 높음을 알 수 있다. (표4. 연령별 발생현황)

2. 에이즈 감염 예방을 위한 전년도 사업

- 특수업체부 4개지역 및 각 구·군보건소 검사요원에 감염방지 예방활동 고취를 위하여 피부살균제 구입배부

- 감염자 본인 부담 진료비 3천만원 (보건복지부·시 각각 50%) 지원

- 감염자 조기발견을 위하여 각 구·군보건소에 검진시약 및 1회용 주사기 구입 배정

- 면역기능 저하자 12명에 대하여 전문진료기관 연계 에이즈발병

억제제(AZT)를 투약

- 감염자 108명 정기면역기능 검사 실시

- 검진사업으로는 일반·성병 정기검진대상자 및 수시검사(익명 검사 포함) 등 (161,156건)

- 에이즈 예방 홍보를 위하여 지하철역 5개소에서 15일간 사진 전시회 및 에이즈의 날 등 정기 및 수시로 감염위험계층 및 위생업종사자 대상별로 홍보를 40만매를 배부함.

3. 감염자 관리에 있어 문제점 및 개선사항

우리시에서 현재 관리하고 있는 AIDS 감염자는 99명(남 88, 여 11)으로 타·시도에 비하여 감염자가 많으나 전문진료기관은 부산대학병원, 부산백병원, 왈레스기념침례병원 등 3개소로 감염자 입원진료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나마 부산대학병원이 격리병동 개·보수 및 응급의료센터 건립으로 당분간 감염자 입원 진료가 불가능하여 지난 4월에 감염자 입원진료과정에서 전문진료기관의 입원실 부족으로 감염자 입원진료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표1. 감염자 발생현황

(단위 : 명)

구분	발생	사망	전출	현관리	비 고
전국	645	117	-	528	발생 : 남567, 여78
부산	159	37	23	99	발생 : 남140, 여19

표2. 감염경로별 현황

(단위 : 명)

구분	계	국외성접촉	국내성접촉	수혈이나 혈액제제	기타	조사중
전국	645	204	341	38	27	35
부산	159	89	48	4	2	16

현행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제13조(진료기관의 설치등)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전문진료기관 등의 시설기준), 같은법 시행규칙 제12조(전문진료기관 등의 지정절차)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진료기관 지정시 연구기관 또는 진료기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도록 되어 있어 현실적으로 전문진료기관을 지정 받고자 하는 진료기관이 없고 전문진료기관의 지정과정 불합리로 지정되지 않은 다른 종합병원은 전문진료기관이 아니라는 이유로 진료를 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다. 각 지정받은 전문진료기관도 지정되지 않은 다른 종합병원과의 형평성을 지적하고 있고 또한 경영상, 간호사 진료기피 등을 문제로 지정해제를 요청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보건복지부에서는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법령개정 등을 조속히 추진하여 감염자 입원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문제점에 대한 개선의견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 AIDS 감염자 진료를 위한 국가 전문진료기관 설치

- 전문진료기관 지정에 있어 진료기관과의 협의사항을 의료법 제32조 규정에 의거 종합병원(대학부설 또는 일정규모 이상) 허가를 득하는 동시에 의무규정으로 지정하여 전문진료기관이 가능토록 법령개정

- 지정전문진료기관에서 감염자 진료 및 간호를 담당하는 의사·간호사 등의 법적 권리보호(보상)법 개정

- 전문진료기관에 대한 정부의 지원 방안을 제시하여 에이즈 감



부산광역시 저하도에서 열린 에이즈예방 패널 전시

염자 전문진료기관을 선호할 수 있는 방안 강구

AIDS 감염자 관리는 각·시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 비슷하리라고 생각되며 에이즈 업무를 보면서 느낀점은 아직 우리사회가 에이즈 감염자를 포용할 수 있는 시민의식이 형성되어 있지 않았으며 특히 최일선에서 종사하는 대부분의 의료인은 감염자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진료에 임하고 있으나 경영진은 영리추구에만 급급하여

간혹 감염자를 냉대하는 불미스러운 일도 발생하고 있다. AIDS는 전인류의 생존과 직결되는 사안이므로 국가 및 지방, 민간단체, 의료계에 종사하는 모든 관계자가 힘을 모아 에이즈감염 위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표3. 연도별 발생현황 (단위: 명)

구분	계	97	96	95	94	93	92	91	90	89	88	87
전국	645	22	102	108	90	78	76	42	54	37	22	14
부산	159	11	10	24	15	21	21	18	15	11	11	2

※ '97년중 부산광역시 감염자 발생 : 11명 (남 : 10명, 여 : 1명) 중에는 타시도 전입자 3명 포함임.

표4. 연령별 발생현황 (단위: 명)

구분	계	10미만	10~19	20~29	30~39	40~49	50~59	60세이상
연령	159	-	2	41	68	37	10	1

※ 발생당시 연령임